

2016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 핵심자료집

주최 | tbs

G10 구로구

서울의꿈상
중구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
Korea Institute for Career & Admission Information





진로, 진학, 입시 등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 입시의 기·상·대

MC : 김보빈 · 전경원 · 정제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공교육 살리기 일환으로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질 높은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국내 유일의 입시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공·사교육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으로 구체적인 입시전략과 공부법 제시
진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예체능, 특성화고 등 수험생의 전략적인 입시상담 진행
서울 및 수도권에서 펼쳐지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무료) 실시 예정

2015학년도 수시상담학생 204명 학생 중 123명 합격
60%의 합격률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가 뭉쳤다! 1:1 맞춤 상담!(무료)

프로그램 정보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후 10시~11시(생방송)

내용: 국내 유일의 1:1 방송

무료입시 맞춤상담

출연자: 매일밤 최고의 대입 전문가들 출연

프로그램 주요내용

▶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상담

▶ 정시상담

▶ 진로, 예체능, 특성화고 입시상담

▶ 영역별, 시기별 공부법·논술특강

▶ 대입 합격 전략특강

참여방법

▶ 홈페이지: www.tbs.seoul.kr/tv/Daehakgaja2/

▶ 트위터: @mylovetbs

▶ 블로그: blog.naver.com/tbsmiracletv

▶ 문의전화: 02)311-5441~2

▶ **afreeca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문위원, 수시&정시 상담선생님

신동원 휘문고 교감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자문위원
조효찬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임병욱 인창고 교감
입학사정관 전문양성교육과정 강사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이석복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 중대부고 교사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
주석훈 하늘고 교감
이정수 송곡여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 평가 이사
박권우 이대부고 교사
수석(수시대박)학교 대학간다 저자
이중서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 소장
오준은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조미정 김명일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

하귀성 (주)비전과멘토 대표
EBS 입시분석위원
박문수 청원여고 교사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
전경원 하나고 진학담당교사
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책임연구원
서상원 일산 대진고 혁신연구부장
윤상형 영동고 교사,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국어교사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
김학수 하나고 화학교사
김태희 하나고 진학상담교사
남형주 수(秀)입시연구소 소장
전)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기획실장
정재원 송의여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이정형 배재고 진로진학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프로그램개발팀장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소실장
김영주 한성여고 연구부장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김호성 영동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정주원 하늘고 교사
윤신혁 일산대진고 교사
백승한 유웨이 중앙교육
교육평가 연구소 평가 실장
유석용 서라벌고 교사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윤태영 송문고 진학팀장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진로상담 선생님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 정책자문위원
최은경 상계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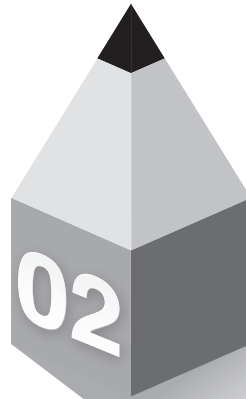
예체능, 특성화고 상담 선생님

정치훈 대원여고 음악과장
Czech Brno Konservator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최무영 상일여고 교사
서울시교육청지정 미술특성화학교 및
미술영재학급 운영
최효철 홍익대사범대학부속여고 미술교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이윤희 등촌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체육과 상담교사
방상현 덕수고 창의활동지원부장
송치경 창동고 체육교사
2009년 3월~4월 지학사 교과서 집필위원
서홍석 경북비즈니스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특성화고 팀장

tbs



Part 02



3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한
학습대책 및 시기별 전략

하 귀 성

- (주)비전과멘토 대표
- SKYEDU 입시분석자문
- EBS 입시분석위원 ('07,'08,'12)
-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문위원
- 전국고교, 교육청, 관공서 초청 특강강사



경쟁자 구조의 이해

3월 학력평가 의미 분석

고3에게 3월 학력평가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속설처럼 지나친 의미부여는 곤란하다. 결과를 너무 과대 해석하면 수능 준비에 대한 전체적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 3월 학력평가는 숨어있는 함정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제한된 평가기준이다.

3월 학력평가는 시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범위로 실시하는 수능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결과가 좋다고 수능을 잘 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반면, 3월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고 첫 스타트부터 슬럼프에 빠져 학습 의욕이 상실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졸업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마다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의 비율이 20% 정도를 차지하며, 졸업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도 많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재학생만 응시하는 3월 학력평가 성적은 진정한 실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졸업생이 처음 응시하는 6월 모의수능에서는 재학생의 성적이 3월 학력평가보다 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도 볼 수 있다. 따라서 3월 학력평가의 성적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셋째, 이제 첫 스타트이다.

3월 학력평가는 2016학년도 입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스타트일 뿐이다. 입시를 육상에 비유한다면 100m 보다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육상 경기 중에 100m 달리기는 첫 스타트가 매우 중요하다. 스타트가 빠를수록 기록이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라톤은 스타트에 큰 의미가 없다. 장기 레이스인 만큼 페이스 조절이나 스퍼트 전략에 따라 승패가 달라진다. 입시도 마찬가지다. 초반 스타트의 결과로 자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남은 기간 힘들고 어려운 장기 레이스에서 효과적인 학습플랜을 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분투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졸업생 및 재학생 응시인원

학년도	구분	재학생	졸업생	합계	졸업생 비율
2014학년도	3월	528,367	-	528,367	0%
	6월	535,475	67,525	603,000	11.20%
	9월	520,035	74,293	594,328	12.50%
	수능	477,297	129,516	606,813	21.34%
2015학년도	3월	506,544	-	506,544	0%
	6월	512,281	66,773	579,054	11.53%
	9월	501,497	75,041	576,538	13.02%
	수능	461,622	133,213	594,835	22.39%
2016학년도	3월 (지원자)	549,396	-	549,396	0%

※ 매년 전체 응시인원의 20% 이상이 졸업생.

내신, 비교과, 학사일정에서 자유롭게 수능에 몰입하는 졸업생과 더불어 경쟁한다는 생각을 1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 2학년 때 재학생들끼리 응시하는 시도교육청 학력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부여 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영역별 응시인원

학년도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영어	탐구	
		A형	B형	A형	B형		사회	과학
2014학년도	3월	254,179	272,104	327,900	194,750	526,490	307,255	205,993
	6월	303,507	297,339	391,329	200,248	600,197	330,051	233,149
	9월	308,707	282,144	420,697	159,293	588,678	329,466	232,972
	수능	322,489	283,585	412,740	160,174	596,478	337,134	235,946
2015학년도	3월	234,076	270,320	312,615	188,507	505,476	297,518	198,827
	6월	270,341	306,409	382,002	184,973	577,007	324,689	225,649
	9월	267,452	304,962	411,520	150,898	571,981	324,797	226,713
	수능	283,229	310,905	404,083	154,297	580,638	332,880	230,377
2016학년도	3월 (지원자)	248,757	300,639	332,588	214,504	548,373	322,840	219,270



EBS 연계율 분석

학년도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사회	과학
2014학년도	3월	75.0	75.0	70.0	70.0	73.0	73.0	70.5	71.0
	6월	75.6	71.1	70.0	70.0	73.3	71.1	70.5	70.6
	9월	71.1	71.1	70.0	70.0	71.1	71.1	70.0	70.0
	수능	71.1	71.1	70.0	70.0	71.1	71.1	71.0	70.0
2015학년도	3월	76.0	76.0	72.0	72.0	71.0		71.0	72.0
	6월	71.1	71.1	70.0	70.0	71.1		70.0	70.0
	9월	71.1	71.1	70.0	70.0	71.1		70.5	70.0
	수능	71.1	71.1	70.0	70.0	75.6		71.0	70.0
2016학년도	3월 (지원자)	72.0	70.0	71.0	71.0	73.0		70.0	71.0

위의 도표처럼 전체적인 EBS 연계율은 70% 수준이다.

EBS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EBS 학습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EBS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으나 중위권 수험생들은 EBS 교재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지난 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 70% 연계'를 재조정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 교재가 교과서와 동떨어져 사교육화 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면서 "현재의 '연계 70%'에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수능체제 개편과 맞물려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EBS 연계율의 축소, 심하게는 폐지의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질 정도로 파장이 클 수 있다. 다만 이는 황우여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리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교실 내 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즉각 "한 권의 교과서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즉, 황 장관 발언은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 EBS 연계책의 보완은 필요하다. 지역격차 해소와 자기주도학습 의욕 고취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EBS 교재가 교과서화 되어 공교육 왜곡을 낳고 있다는 의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6월과 9월 모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 6월, 9월 모의수능에서의 EBS 연계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평균(원점수 기준)

구분		국어		수학		영어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2014학년도	3월	64.41	64.17	31.24	43.46	36.09	56.52
	6월	65.73	66.97	41.48	48.47	45.07	59.40
	9월	62.46	68.27	43.49	55.85	46.82	61.75
	수능	67.60	70.06	44.60	53.26	62.47	64.56
2015학년도	3월	66.22	64.03	30.84	42.38	49.40	
	6월	64.55	63.09	47.20	58.24	67.73	
	9월	70.16	73.40	43.04	53.98	64.49	
	수능	65.74	61.98	53.66	67.12	66.97	
2016학년도	3월 (가채점)	64.04	64.12	38.05	48.33	63.71	

영역별 등급구분점수

학년도	구분	국어 A형				국어 B형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4	3월	94	90	84	74	93	88	81	72	94	87	75	63
	수능	96	91	84	76	96	92	87	79	93	88	81	72
2015	3월	96	92	86	76	95	90	82	73	92	83	69	54
	수능	97	92	85	75	91	85	78	70	98	93	84	74
2016	3월 (가채점)	96	91	85	75	94	90	82	73	98	95	85	72
학년도	구분	수학 A형				수학 B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4	3월	77	59	44	31	86	73	60	48				
	수능	92	83	70	48	92	84	74	62				
2015	3월	72	55	42	31	88	74	59	45				
	수능	96	92	83	67	100	96	89	80				
2016	3월 (가채점)	84	70	58	38	92	84	71	54				



사회탐구영역

과목	2016 3월 학력평가(가채점)				2015 수능				2014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윤리와사상	44	40	32	26	47	44	40	34	47	44	38	31
생활과윤리	41	36	31	26	45	42	40	36	47	44	41	35
한국사	44	38	31	21	47	44	40	32	50	47	44	37
동아시아사	47	41	36	28	48	45	42	36	48	45	42	36
법과정치	42	37	31	26	48	45	40	34	47	45	41	33
경제	42	36	29	21	50	48	45	39	50	48	43	38
한국지리	41	35	32	28	47	45	41	36	46	43	39	33
세계지리	42	38	32	28	47	44	40	35	48	45	41	36
세계사	47	38	31	24	48	45	40	33	50	47	42	33
사회문화	42	38	30	24	50	47	43	35	48	44	40	34

과학탐구영역

과목	2016 3월 학력평가(가채점)				2015 수능				2014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물리 I	40	34	26	18	45	40	35	27	47	43	37	30
화학 I	45	39	32	24	45	41	36	31	43	40	37	32
생명과학 I	42	38	30	26	45	40	36	29	45	40	36	29
지구과학 I	44	38	30	24	47	43	39	33	44	39	36	30
물리 II	-	-	-	-	48	45	41	33	46	45	41	36
화학 II	-	-	-	-	46	43	39	34	44	40	35	29
생명과학 II	-	-	-	-	42	39	34	28	47	45	39	33
지구과학 II	-	-	-	-	46	42	34	26	48	45	40	33

대학 선발 구조의 이해

지원 시기별 선발 인원 비교

구분	수시	정시
	66.7%	33.3%
학생부(교과)	38.4% (▼ 0.3%)	0.1% (▼ 0.1%)
학생부(종합)	18.5% (▲ 2.8%)	0.4% (-)
논술 위주	4.2% (▲ 0.2%)	28.8% (▼ 2.8%)
실기 위주	4.7% (▲ 0.1%)	3.9% (-)
기타	0.9% (▼ 0.1%)	0.01% (-)

2016학년도 기준 대학이 수험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수시 66.7%, 정시 33.3%로 수시에서 정시의 2배 이상을 선발한다. 또한 수시모집 내에서는 교과형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종합전형(18.5%) 순이다. 하지만 위 도표만으로 수시모집 비율이, 수시모집 내 교과형의 비중이 크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선발비율

전형	전체 대학 기준	주요 15개 대학	주요 14개 대학 (서울대 제외)	주요 10개 대학 (서울대 제외)	주요 6개 대학 (서울대 제외)
학생부 교과형	38.4%	7.52%	8.10%	5.44%	5.46%
학생부 종합형	18.5%	27.66%	23.98%	26.90%	25.87%
논술형	4.2%	20.11%	21.67%	23.35%	24.95%
실기(특기)형	4.7%	7.74%	8.34%	10.00%	14.09%

※ 주요 6개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기준

※ 주요 10개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이화여대 기준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선발비율을 보면 전체 대학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대학으로만 살펴보면 교과형의 비중은 가장 적고 상대적으로 종합형과 논술형의 비중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마다 수시 전형별 선발인원이 다르며, 특히 주요대학일수록 교과형 선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전형에 비중을 두고 수험생을 선발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럼 다음 도표를 확인해 보자.

주요대학 전형별 선발 인원 (전체 인원 기준)

대학	수시모집 [인원(비율)]				정시모집 [인원(비율)]	전체 선발인원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건국대	154명(5.5%)	608명(22.0%)	484명(17.1%)	34명 (1.2%)	1,533명(54.2%)	2,833명
경희대	-	1,492명(31.9%)	935명(20.0%)	355명(7.6%)	1,901명(40.6%)	4,683명
고려대	-	990명(26.6%)	1,110명(29.8%)	595명(16.0%)	1,027명(27.6%)	3,722명
단국대	420명(17.6%)	462명(19.4%)	360명(15.1%)	62명 (2.6%)	1,083명(45.4%)	2,387명
동국대	309명(12.1%)	396명(15.5%)	499명(19.6%)	118명(4.6%)	1,226명(48.1%)	2,548명
서강대	-	559명(35.0%)	405명(25.3%)	134명(8.4%)	501명(31.3%)	1,599명
서울대	-	2,324명(75.2%)	-	-	766명(24.8%)	3,090명
서울시립대	-	403명(24.7%)	190명(11.6%)	-	1,038명(63.6%)	1,631명
서울여대	-	812명(47.2%)	150명(8.7%)	71명(4.1%)	688명(40.0%)	1,721명
세종대	609명(23.1%)	366명(13.9%)	464명(17.6%)	109명(4.1%)	1,094명(41.4%)	2,642명
성균관대	-	1,162명(33.0%)	1,223명(34.7%)	240명(6.8%)	900명(25.5%)	3,525명
성신여대	498명(22.3%)	491명(22.0%)	-	226명(10.1%)	1,017명(45.6%)	2,232명
숙명여대	292명(13.4%)	380명(17.4%)	348명(15.9%)	188명(8.6%)	974명(44.6%)	2,182명
송실대	439명(16.3%)	666명(24.7%)	414(15.3%)	57명(2.1%)	1,123명(41.6%)	2,699명
연세대	257명(7.6%)	480명(14.2%)	683명(20.2%)	970명(28.7%)	991명(29.3%)	3,381명
이화여대	380명(12.7%)	550명(18.4%)	550명(18.4%)	355명(11.9%)	1,155명(38.6%)	2,990명
중앙대	483명(12.2%)	1,157명(29.3%)	896명(22.7%)	-	1,418명(35.9%)	3,954명
충남대	1,471(38.3%)	754(19.6%)	-	41(1.1%)	1,576(41.0%)	3,842명
충북대	1,264(41.5%)	506(16.6%)	-	14(0.4%)	1,265(41.5%)	3,049명
한국외대	163명(9.8%)	341명(20.6%)	476명(28.8%)	102명(6.2%)	573명(34.6%)	1,655명
한양대	346명(12.4%)	915명(32.9%)	520명(18.7%)	242명(8.7%)	759명(27.3%)	2,782명
홍익대	857명(33.9%)	127명(6.2%)	346명(13.7%)	24명(0.9%)	1,143명(45.2%)	2,527명

위 도표를 보면 주요대학마다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교과, 논술, 실기전형 없이 종합전형만으로 수시인원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실기(특기)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고려대는 논술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이처럼 대학마다 비중을 두고 선발하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선발구조를 잘 살펴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대학 전체 인원만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계열로 세분화하여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대학 전형별 선발 인원(계열별 인원 기준)

대학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열별 선발인원 (명)	전체 선발인원 (명)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건국대	인문	56	5.4	269	25.7	201	19.2	-	-	520	49.7	1,046	2,489
	자연	98	6.8	324	22.5	283	19.6	-	-	738	51.1	1,443	
경희대	인문	-	-	702	37.5	351	18.8	86	4.6	733	39.2	1,872	3,766
	자연	-	-	655	34.6	539	28.5	-	-	700	37.0	1,894	
고려대	인문	-	-	502	26.6	574	30.5	290	15.4	519	27.5	1,885	3,615
	자연	-	-	488	28.2	536	31.0	273	15.8	433	25.0	1,730	
서강대	인문	-	-	357	36.2	235	23.8	67	6.8	327	33.2	986	1,599
	자연	-	-	202	33.0	170	27.7	67	10.9	174	28.4	613	
서울대	인문	-	-	611	75.8	-	-	-	-	195	24.2	806	2,682
	자연	-	-	1,333	71.1	-	-	-	-	543	28.9	1,876	
서울 시립대	인문	-	-	180	24.2	87	11.7	-	-	477	64.1	744	1,497
	자연	-	-	215	28.6	103	13.7	-	-	435	57.8	753	
성균관대	인문	-	-	614	37.9	590	36.4	-	-	416	25.7	1,620	3,284
	자연	-	-	527	31.7	633	38.0	140	8.4	364	21.9	1,664	
숙명여대	인문	228	16.4	283	20.4	281	20.2	94	6.8	502	36.2	1,388	1,827
	자연	64	14.6	97	22.1	67	15.3	7	1.6	204	46.5	439	
연세대	인문	136	8.0	246	14.4	339	19.8	503	29.4	486	28.4	1,710	3,171
	자연	121	8.3	184	12.6	342	23.4	386	26.5	428	29.3	1,461	
이화여대	통합	380	15.8	550	22.9	550	22.9	175	7.2	751	31.2	2,406	2,406
중앙대	인문	219	13.3	631	38.3	466	28.3	-	-	330	20.0	1,646	3,287
	자연	264	16.1	521	31.7	429	26.1	-	-	427	26.0	1,641	
한국외대	인문	163	9.8	341	20.6	476	28.8	102	6.2	383	23.1	1,655	1,655
한양대	인문	142	13.1	431	39.7	150	13.8	120	11.0	243	22.4	1,086	2,491
	자연	199	14.2	456	32.5	363	25.8	-	-	387	27.5	1,405	



또한 주요대학 중 상당수가 평균 정시 모집비율인 33.3%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건국대(54.2%), 서울시립대(63.6%)는 수시보다 많은 인원을 정시로 선발한다. 이 외에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할 때 단순히 수시로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시 확정인원 증가 - 주요대학 이월 인원 구조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건국대	31	32	34	38	성균관대	228	256	84	165
경희대	79	68	91	153	숙명여대	33	12	29	14
고려대	80	161	41	103	연세대	33	234	37	92
서강대	1	54	18	14	이화여대	13	62	13	24
서울대	1	98	4	174	중앙대	158	106	18	25
서울시립대	22	83	24	43	한양대	31	84	2	3

목표 점수를 구체화하라

보통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얘기할 때 등급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급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수학의 경우 쉬울 때는 90점대에서 1등급이 형성되지만 어려울 때에는 80점대에서도 1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능이 쉽게 출제될수록 1등급과 2등급의 급간 점수 차이가 적을 수 있으므로 목표를 세울 때 단순한 등급보다는 점수(원점수 = 득점)로 구체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역별 등급구분점수

1) 국어영역, 영어영역

학년도	구분	국어 A형				국어 B형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4	6월	96	93	86	77	96	92	86	77	95	89	78	67
	9월	95	88	82	74	96	92	86	78	92	86	81	71
	수능	96	91	84	76	96	92	87	79	93	88	81	72
2015	6월	97	93	87	77	94	88	82	73	100	97	90	79
	9월	100	96	91	83	100	97	93	87	98	94	86	76
	수능	97	92	85	75	91	85	78	70	98	93	84	74

2) 수학영역

학년도	구분	수학 A형				수학 B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4	6월	92	84	67	44	92	81	68	54
	9월	92	83	66	42	97	91	79	65
	수능	92	83	70	48	92	84	74	62
2015	6월	96	88	80	56	96	88	80	70
	9월	88	78	65	49	92	85	77	64
	수능	96	92	83	67	100	96	89	80



3) 사회탐구영역

과목	2015학년도 수능				2014학년도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윤리와사상	47	44	40	34	47	44	38	31
생활과윤리	45	42	40	36	47	44	41	35
한국사	47	44	40	32	50	47	44	37
동아시아사	48	45	42	36	48	45	42	36
법과정치	48	45	40	34	47	45	41	33
경제	50	48	45	39	50	48	43	38
한국지리	47	45	41	36	46	43	39	33
세계지리	47	44	40	35	48	45	41	36
세계사	48	45	40	33	50	47	42	33
사회문화	50	47	43	35	48	44	40	34

4) 과학탐구영역

과목	2015학년도 수능				2014학년도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물리 I	45	40	35	27	47	43	37	30
화학 I	45	41	36	31	43	40	37	32
생명과학 I	45	40	36	29	45	40	36	29
지구과학 I	47	43	39	33	44	39	36	30
물리 II	48	45	41	33	46	45	41	36
화학 II	46	43	39	34	44	40	35	29
생명과학 II	42	39	34	28	47	45	39	33
지구과학 II	46	42	34	26	48	45	40	33

대학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학습 우선순위 수립

‘무작정 열심히!!’ 라는 단어는 수험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현 시점부터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열별로 기본적인 학습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좀 더 고민한다면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하되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의 반영비율 변화는 점검하면서 학습 계획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1) 인문계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대학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건국대	가/나/다	전 모집단위	B30	A25	35	사/과10	2
경희대	가/나	인문	B30	A25	30	사15	2
		사회	B20	A35			
고려대	나	전 모집단위	B28.6	A28.6	28.6	사14.2	2
		전 모집단위	A28.6	B28.6	28.6	과14.2	2
광운대	나/다	경영	A/B30	A/B30	30	사/과10	2
		인문사회	A/B30	A/B20	30	사/과20	2
국민대	가/나	전 모집단위	B30	A20	30	사20	2
단국대 (죽전)	가/나/다	국제경영	B20	A20	40	사20	2
		상경대학	B20	A30	30	사20	
		인문	B30	A20	30	사20	
		응용통계, 건축	A/B25	A/B25	30	사/과20	
동국대	가/나	전 모집단위	B30	A20	30	사/과20	2
서강대	가	전 모집단위	B25	A32.5	32.5	사/과10	2
서울대	가	전 모집단위	B25	A30	25	사/과20	2
서울 시립대	가/나	전 모집단위	A/B28.6	A/B28.6	28.6	사/과14.2	2
			1개 영역 B		28.6	사/과14.2	
성균관대	가/나	전 모집단위	B30	A30	30	사/과10	2



대학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세종대	나	전 모집단위	B30	A20	40	사10	2
송실대	가/나/다	인문	B35	A15	35	사/과15	2
		경상	B15	A35	35	사/과15	
숙명여대	나	인문	B30	A20	30	사20	2
		경상	B25	A25	30	사20	
		통계	B(30)	A50	(30)	사20	
		의류	B30	A10	40	사20	
연세대 (서울)	나	전 모집단위	B28.6	A28.6	28.6	사/과14.2	2
			A28.6	B28.6	28.6	사/과14.2	2
이화여대	가	인문	B25	A25	30	사/과20	2
		건강과학대학	(B35)	A35	(35)	사/과30	
중앙대	가/나/다	전 모집단위	B30	A30	30	사/과10	2
한국외대	가/나	전 모집단위	B30	A25	35	사/과10	2
한양대	가/나	전 모집단위	B25	A25	25	사25	2
홍익대	나/다	인문	A/B25	A/B25	25	사/과25	2
			1영역 B				
		자율전공	A/B(33.3)	A/B(33.3)	(33.3)	사/과(33.3)	
			1영역 B				

※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

2) 인문계 3개영역 반영 주요대학

대학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덕성여대	가/나	전 모집단위	A/B 40	(A/B 20)	40	(사 20)	1
삼육대	가/다	전 모집단위	(A/B 40)	(A/B 40)	40	사/과 20	2
서경대	다	글로벌경영학과	A/B 30	A/B 20	50	-	-
서울여대	가/나/다	전 모집단위	A/B 33.3	(A/B 33.3)	33.3	(사/과 33.3)	2
성신여대	가	의류, 식품영양, 간호학과	(B 20)	A 40	40	(사 20)	2
		운동재활복지	B 40	(A 20)	40	(사 20)	2
	나	수학, 통계, 생명과학화학, IT, 청정융합과학	(B 20)	A 40	40	(사 20)	2



3) 자연계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대학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건국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0	30	과20	2
경희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5	25	과20	2
고려대	나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광운대	가/나	자연	A15	B35	30	과20	2
		건축	A/B20	A/B30	30	사/과20	2
국민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0	30	과20	2
단국대 (죽전)	가/나/다	자연	A20	B30	30	과20	2
		응용통계, 건축	A/B25	A/B25	30	사/과20	2
동국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0	30	과20	2
서강대	가	전 모집단위	A20	B35	30	과15	2
서울대	가	전 모집단위	A25	B30	25	과20	2
서울 시립대	가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성균관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세종대	나	전 모집단위	A15	B35	30	과20	2
숙명여대	나	자연(일부)	A25	B30	25	과20	2
		수학	A20	B40	20	과20	
		통계	A(30)	B50	(30)	과20	
		컴퓨터과학, 멀티미디어	A20	B30	30	과20	
		의류	A30	B10	40	과20	
		식품영양	A25	B25	30	과20	
송실대	가/나/다	자연계열1	A15	B35	25	과25	2
		자연계열2	A/B15	A/B35	25	사/과25	
연세대	나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이화여대	가	자연	A25	B25	25	과25	2
		건강과학대학	A(35)	B35	(35)	과30	
중앙대	가/다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한양대	가/나	전 모집단위	A20	B30	20	과30	2
홍익대	나/다	자연	A(33.3)	B33.3	(33.3)	과33.3	2
		자율전공	A/B(33.3)	A/B(33.3)	(33.3)	사/과(33.3)	
			1영역 B		(33.3)	사/과(33.3)	

※ 자연계는 수학, 과학 또는 수학, 영어 비중이 중요

4) 자연계 3개영역 반영 주요대학

대학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비율	과목수
덕성여대	가/나	전 모집단위	(A/B 20)	A/B 40	40	(과 20)	1
삼육대	가/다	전 모집단위	(A/B 40)	(A/B 40)	40	사/과 20	2
서울여대	가/다	전 모집단위	A/B 33.3	(A/B 33.3)	33.3	(사/과 33.3)	2
성신여대	가	의류, 식품영양	(A/B 20)	A/B 40	40	(과 20)	2
		운동재활복지	A/B 40	(A/B 20)	40	(과 20)	2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	-	A/B 40	40	과 20	2
	나	수학, 통계, 생명과학화학, IT, 청정융합과학	(A/B 20)	A/B 40	40	(과 20)	2



수능 활용지표에 따른 학습 우선순위

구분		대학	학습 우선순위
인문계	표준점수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홍익대 등	수학 > 국어 = 영어 > 사회탐구
	백분위	가천대, 경인교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영어 = 국어 > 사회탐구 > 수학
	- 표준점수, 백분위 활용에 따라 학습 우선순위가 달라짐 - 표준점수 대학은 수학의 표준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비중이 높음 - 백분위 반영대학은 영어와 탐구의 백분위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영어, 탐구영역 고득점 중요 또 국어도 쉽게 출제될 경우 백분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주요대학은 제2외/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탐구 불이익에 대한 대비 필요		
자연계	표준점수	※ 의예과(단국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홍익대 등	수학 > 과학탐구 = 영어 > 국어
	백분위	※ 의예과(건양대, 계명대, 관동대, 순천향대 등) 가천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과학탐구 = 수학 > 영어 > 국어
	- 표준점수와 백분위 활용의 우선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 표준점수 반영 시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백분위 반영에서는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탐구 1점당 떨어지는 백분위 폭이 커 탐구가 중요 수학 B형도 응시 인원이 적어 수학 A형에 비해 백분위 하락폭이 크다		

대학별 수능 활용지표

구분	대학
표준점수	가톨릭대, 서강대, 서울교대, 세종대, 숭실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홍익대(글로벌) 등 ※ 탐구 백분위 가공 변환 표준점수로 반영하는 일부 대학도 표준점수로 정리됨
백분위	가천대, 경인교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
표준(국,수,영) + 백분위(탐구)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제2외/한문 미반영 모집단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표준(국,수,영) + 백분위(탐구) + 제2외국어	서울대(제2외국어/한문 반영 모집단위) 1개교

수능 점수구조 분석 (2015학년도 수능 기준)

구분	국어 A형				국어 B형				영어			
원점수	표준	백분위	등급	누적 인원	표준	백분위	등급	누적 인원	표준	백분위	등급	누적 인원
100	132	99	1	3,882	139	100	1	280	132	98	1	19,564
98	130	98	1	9,480	137	100	1	1,180	130	96	1	26,070
97	129	96	1	11,462	136	100	1	1,521	129	94	2	41,732
96	128	95	2	16,156	135	99	1	2,880	128	93	2	43,335
93	125	90	2	29,877	132	98	1	8,289	125	89	2	67,114
92	124	89	2	33,715	131	97	1	10,324	124	88	3	76,972
91	123	87	3	38,970	130	96	1	13,592	123	86	3	84,714
90	122	85	3	43,434	129	95	2	16,798	122	85	3	90,664
88	121	83	3	53,097	127	93	2	24,426	120	82	3	106,871
85	118	77	3	67,273	124	89	2	37,708	117	78	3	130,796
84	117	75	4	72,192	123	87	3	42,798	116	77	3	139,897
82	115	72	4	81,541	120	84	3	53,540	114	74	4	157,327
80	113	69	4	91,038	118	80	3	64,893	112	70	4	186,688
78	111	65	4	100,589	116	76	3	76,392	111	67	4	196,982
75	109	61	4	114,651	113	71	4	94,479	108	61	4	229,998



구분	수학 A형				수학 B형			
원점수	표준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표준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100	131	99	1	10,250	125	98	1	6,630
98	130	97	1	10,263	124	96	2	6,646
96	129	95	1	28,534	122	91	2	19,513
94	127	93	2	28,609	121	87	3	19,588
92	126	89	2	57,106	119	82	3	33,535
90	124	86	3	59,462	118	78	3	33,743
89	123	82	3	88,205	117	77	3	36,086
84	120	75	3	108,633	113	66	4	56,834
83	120	75	3	108,633	112	63	4	56,898
80	117	69	4	124,563	110	59	4	66,572
78	116	68	4	130,902	108	55	5	71,383
75	114	66	4	140,221	106	51	5	75,936
70	111	62	4	153,089	102	45	5	86,448

구분	사회탐구영역							
원점수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50	68	100	1	602	65	97	1	8,595
48	66	99	1	1,896	64	93	2	12,610
47	65	98	1	4,277	63	90	2	20,121
46	64	96	1	10,388	62	87	3	21,339
45	64	96	1	10,388	61	83	3	33,350
44	63	93	2	14,252	61	83	3	33,350
43	62	90	2	18,188	60	78	3	37,078
42	61	86	2	27,584	59	75	4	43,727
41	60	82	3	31,991	58	72	4	46,555
40	59	78	3	40,172	57	68	4	55,758
원점수	한국사				한국지리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50	67	99	1	567	66	99	1	1,958
48	66	97	1	1,430	65	97	1	3,553
47	65	95	1	2,369	64	95	1	7,278
46	64	93	2	2,925	63	92	2	8,033
45	63	89	2	5,318	62	90	2	12,087
44	63	89	2	5,318	61	85	3	17,740
43	62	84	3	6,802	61	85	3	17,740
42	61	80	3	8,848	60	80	3	22,321
41	61	80	3	8,848	59	76	3	24,771
40	60	75	3	10,173	58	73	4	28,409



구분	과학탐구영역							
원점수	화학 I				생명과학 I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50	71	100	1	1,111	71	100	1	533
48	69	99	1	1,595	70	99	1	1,498
47	68	98	1	3,803	69	98	1	3,056
46	68	98	1	3,803	68	98	1	3,496
45	67	97	1	5,579	67	96	1	6,871
42	64	92	2	12,435	64	91	2	14,786
41	63	90	2	15,550	63	88	2	19,936
40	62	88	3	17,038	63	88	2	19,936
38	60	83	3	24,976	61	82	3	26,486
37	59	80	3	27,849	60	80	3	30,527
36	58	77	3	33,723	59	77	3	34,234
원점수	화학 II				생명과학 II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누적인원
50	68	99	1	76	73	100	1	64
48	66	98	1	134	72	100	1	113
47	65	96	1	317	71	99	1	302
46	65	96	1	317	70	99	1	326
45	64	93	2	460	69	99	1	553
43	62	88	2	688	67	97	1	1,116
42	61	85	3	908	66	95	1	1,722
40	59	78	3	1,394	64	92	2	2,691
39	59	78	3	1,394	63	90	2	3,540
38	58	73	4	1,555	62	86	3	4,979
35	55	63	4	2,129	60	80	3	6,697
34	54	59	4	2,304	59	77	3	7,797

시기별 학습 로드맵

학습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시기별에 따른 전반적인 학습 계획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학습 로드맵이 있어야 세밀한 계획도 가능한 법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6학년도 수능까지 크게 4ROUND로 나누어 학습 로드맵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구분	대입 이슈	점검 사항
1Round (3월, 4월)	· 3월 학력평가 · 4월 학력평가 · 1학기 중간고사	· 모의고사 결과 분석 모의고사를 분석하라는 것은 점수에 연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틀린 문제들의 단원과 유형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학습 계획에 반영하라는 의미이다. · 중간고사 준비 간혹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아예 별개로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다. 하지만 출제 범위와 고교별 출제 유형이 다르기는 하나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내신 준비기간은 2~3주 전부터 시작한다. · 수능 취약영역 집중보완
2Round (5월, 6월, 7월)	· 6월 모의수능 · 1학기 기말고사 · 여름방학	· 모의수능 결과 분석 · 기말고사 준비 · 여름방학 학습 계획 수립 · 수시 지원 전형에 따른 준비 점검 - 학생부 및 특기형 : 자기소개서 및 서류 준비 점검 - 논술 & 적성형 : 대학 유형에 맞춘 대학별고사 준비 및 추가 대비 계획 점검 · 수능 취약영역 집중보완
3Round (8월, 9월)	· 2학기 중간고사 · 9월 모의수능 · 수시모집 원서 접수 · 2015 대입수능 지원 접수	· 수시모집 원서접수 6월 모의수능 결과 및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 (9월) 실시 · 중간고사 준비 · 수능 대비 전 단원 마무리 학습
4Round (10월, 수능 전)	· 대학수학능력시험	· 영역별 학습 최종 점검 · 기출문제 및 EBS 연계교재를 통한 최종 마무리 · 수능 당일에 대비한 학습 컨디션 조절



2016학년도 모의수능 및 학력평가 일정

구분	고3		졸업생 응시
	시행일	주관	
3월	11일(수)	서울시교육청	×
4월	9일(목)	경기도교육청	×
6월	11일(목)	평가원 모의수능	○
7월	9일(목)	인천광역시교육청	×
9월	2일(수)	평가원 모의수능	○
10월	13일(화)	서울시교육청	×

학생부 교과 학습법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며 인문계 국수영사, 자연계 국수영과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며, 주요교과 중에서 일정 단위수를 지정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 교과 관리 우선순위도 목표 대학이나 전형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교과 성적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 및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입시 전략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주요대학 전형별 교과 반영 방법

대학	전형 유형	전형	반영과목		반영방법
			인문	자연	
건국대	교과	KU교과우수자	국,수,영,사(지정과목)	국,수,영,과(지정과목)	1학년20+2학년40+3학년40
	종합	KU자기추천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KU논술우수자	국,수,영,사 각 3과목	국,수,영,과 각 3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정시	KU일반전형	국,수,영,사 각 3과목	국,수,영,과 각 3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경희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종합	지역균형전형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학년, 이수단위 가중치 없음
	종합	학교생활충실자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학년, 이수단위 가중치 없음
	논술	논술우수자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학년, 이수단위 가중치 없음
	정시	일반전형	-	-	미반영
고려대	종합	학교장추천	국,수,영,사 전과목	국,수,영,과 전과목	1학년20+2학년40+3학년40
	종합	융합형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일반전형	국,수,영,사 전과목	국,수,영,과 전과목	1학년20+2학년40+3학년40
	정시	일반전형	국,수,영,사 각 3과목	국,수,영,과 각 3과목	학년, 학기 구분 없음
서강대	종합	자기주도형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종합	일반형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논술전형	국,수,영,사	국,수,영,과	
	정시	일반전형	-		교과 미반영 출결, 봉사 반영
서울대	종합	지역균형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종합	일반전형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정시	일반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활용
서울 시립대	종합	학생부종합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논술전형	전 과목	전 과목	
	정시	일반전형	-	-	미반영



대학	전형 유형	전형	반영과목		반영방법
			인문	자연	
성균관대	종합	성균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글로벌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과학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우수	3학년 1학기까지 상위 10과목		
	정시	일반전형	-		미반영
연세대	교과	학생부교과	반영과목A: 국,수,영,사,과 반영과목B: 반영과목 A이외 과목		1학년20+2학년40+3학년40 과목A: Z점수 반영
	종합	학교활동우수자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일반전형	국,수,영,사,과		1학년20+2학년40+3학년40
	정시	일반전형	국,수,영,사 각 3과목	국,수,영,과 각 3과목	학년,학기,이수단위 구분 없음
이화여대	교과	고교추천전형	국,수,영,사 전 단위	국,수,영,과 전 단위	학년별 가중치 없음
	종합	미래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일반전형	국,수,영,사,과 중 상위 30단위		학년별, 교과영역별 구분 없음
	정시	일반전형	국,수,영,사,과 중 상위 30단위		학년별 가중치 없음
중앙대	교과	학생부교과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종합	다빈치형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종합	탐구형인재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논술	논술전형	국,수,영,사 상위10과목	국,수,영,과 상위10과목	
	정시	일반전형	-	-	미반영
한국외대	교과	학생부교과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과목별 가중치 적용 등급 또는 원점수 반영 과목별 가중치 적용 등급 또는 원점수 반영
	논술	논술전형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종합	학생부종합	전 과목	전 과목	종합평가
	정시	일반전형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과목별 가중치 적용 등급 또는 원점수 반영
한양대	교과	학생부교과	국,수,영,사 전 과목	국,수,영,과 전 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종합	학생부종합	-	-	관련계열 교과 이수확인
	논술	논술 전형	-	-	관련계열 교과 이수확인
	정시	일반전형	국,수,영,사 각 3과목	국,수,영,과 각 3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영역별 학습법

1. 국어영역

3월 학력평가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작년 3월 학력평가 및 6월,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어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취지를 비치고 있다. 작년 수능은 비문학에서 변별력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3월 학력평가에서도 비문학이 변별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숙지

EBS 교재와 연계돼 나온 문제들은 교과과정 기본개념을 강조한 측면이 더욱 큰 만큼 교과서 기본개념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내용이 까다로운 지문이나 문제를 일정 시간 내에 읽고 풀어내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문학은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작가의 작품과 새롭게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익혀 뒤야 할 것이다.

2) 시험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이 필요

어려운 한 두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실전 감각을 익히고 문제 푸는 요령도 익히는 것은 평소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쌓아 둘 수험생의 덕목이다.

3) 파트별 학습

· 비문학

비문학은 독해원리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해력은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확한 독해원리를 배우고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해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만한 길이와 주제의 글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 연습이 효과적이며 문제와 연결 지어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특히 단락별 중심 문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글 전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병행하여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

발문 분석 → 선지 확인 → 문단 정리 → 핵심어 파악 → 주제 파악 순서로 분석과 문제 해결 과정 훈련이 필요하다.



· 문법

문법은 긴 시간동안 잡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주로 출제되는 개념은 정해져 있으므로 주요 개념을 정리한 뒤 실전문제를 풀면서 빠른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 개념이 문제화 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개념학습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법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제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념의 양은 많지 않지만 실전감각과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파트이다. 따라서 개념공부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정리된 문법서를 정독한 뒤 실전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 문학

문학은 다른 영역과 달리 EBS 실질 연계율의 체감도가 높은 파트이다. 따라서 EBS 교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과 작가, 그리고 연관된 작품과 작가를 정리하여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한다.

현대시 파트는 두 편이나 세 편의 시들을 서로 연결하여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종합적인 감상 능력을 묻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므로 평소 여러 작품들을 공부하며 작품 분석하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특히 시를 읽고 서정적 자아가 처한 상황을 찾고 태도나 정서를 찾는 연습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뒤에 이해와 감상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찾은 상황, 태도, 정서를 확인해 본다. 표현상의 특징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한 편 이상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고전문학 파트의 관건은 고어 형태로 작품 출제에 대한 대비인 만큼, 고전 어휘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해두어야 한다. 소설 문학의 경우는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가의 작품 가운데 비교적 사건의 완결성이 뛰어난 작품에 신경을 더 써야 하며,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처한 상황(사건), 갈등관계를 문제 해결의 단서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인물 → 갈등 → 주제 → 시점에 따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 수학영역

A형은 아직 학습이 완전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도형을 활용한 무한등비급수 문제와 수학적 귀납적 정의관련 문제가 3월 학력평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B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객관식도 기존의 기출문제 변형 유형이 똑같은 소재로 반복 출제 되었으며, 주관식도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어렵지 않았다. 단, 이번 3월 학력평가에는 적분통계와 기하벡터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 각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 두자

요즘 문제들을 살펴보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원별로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들을 정리해 두고 이해하며 통합력을 넓히는 연습을 충분히 해 두어야 한다.

수리영역은 결국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응용되더라도 새롭고 어렵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보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쉬운 개념 위주의 문제도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리해보고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개념과 공식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숙지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기출문제의 유형을 충분히 익히자

기출문제는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하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충분히 익히고 함수와 그래프, 도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 접근 방식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는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실생활 문제와 증명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론 능력을 기르자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단순화 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생활 문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그 상황을 직접 단순화 시키고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규칙성이 발견되는지 어떠한 개념 등이 적용되었는지 연습을 통하여 충분히 익혀 두도록 한다. 증명부분에서는 문제에서 어떠한 부분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무슨 원리와 증명법을 쓰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시간을 소중히! 제 시간 안에 모두 해결하는 연습을 하자

아무리 시험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여도 주어진 100분 동안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실전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해서 1번부터 풀어야 할지, 주관식부터 풀어야 할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연습해서 자신만의 문제 풀이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의 숙제이다.



3. 영어영역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쉬운 기조 정책은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백분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만점을 목표로 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3월 학력평가에서는 빈칸 유형뿐 아니라 간접쓰기(순서배열, 문장삽입, 문단요약) 난이도가 높게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어법 문제의 경우 단순한 문법사항을 묻기보다는 복잡한 구문 문장 속에서의 어법 사항을 묻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구문 공부와 병행되어야 만점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 수능 영어는 얼마나 정확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유창한가를 평가한다.

수능 영어문제는 어법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으며, 그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측정했던 종래의 평가 방법에서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창성(fluency)은 얼마나 빨리 영어 지문을 읽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의 영어 지문은 그 내용에 따라 오직 한 유형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소에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기른다. 속독속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것이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지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하느냐 하는 것이다.

2) 어휘력을 키워라.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많이 읽다보면 연관되는 많은 어휘들을 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개개의 단어나 숙어 및 어구의 다양한 쓰임새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모르는 단어나 어구를 만나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글을 읽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읽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사전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글을 끝까지 다 읽은 후에 사전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 번 사전을 찾아 검색을 마친 단어 및 어구는 반드시 단어장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자주 접해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휘를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하기'이다. 절대 눈으로만 혹은 쓰기로만 외우지 말고 반드시 말하면서 귀에 단어의 '음'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기별 영어 학습법

(1) 6월 모의수능 이전

꾸준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 매일 풀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려울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지속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는 언어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학습이므로 한 번에 몰아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규칙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제를 풀 때에는 나에게 취약한 유형을 집중 공략한다. 틀린 문제들을 모아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다.

(2) 6월 모의수능 이후

전체 유형을 담은 실전 문제를 규칙적으로 풀어보며 특히 듣기 훈련에 집중한다.

실전 문제를 풀 때에는 전체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즉 실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어려운 어휘나 숙어 구문 그리고 문법성 판단에 관련된 학습을 병행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영어는 몰아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매일매일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꾸준한 학습을 하여 영어의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탐구영역

사회탐구영역은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교과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고루 출제 되었으며, 교과 내용을 낱말퍼즐, 지역축제 포스터, 초청장, 다큐멘터리 기획안 등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체 실험, 새해 해맞이,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실생활 상황이나 시사적인 내용들이 문항 소재로 활용됐다.

과학탐구영역은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지난해 수능 유형도 반영되었지만 신유형 및 고난도 문항이 일부 출제돼 변별력이 높아졌다. 특히 생명과학 I 의 경우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주어진 자료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형 문항이 주로 출제됐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거나 자료의 해석이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 및 기존에 많이 접해왔던 자료와는 다르게 접근 방식이 신선한 신유형 문항도 3~4문항 출제되어 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1) 탐구과목 점검사항 (인문, 자연 공통)

고3 3월 학력평가가 마무리 된 지금 탐구영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탐구 과목을 학습할 때 학습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관건이다. 탐구 두 과목을 동일 비중을 두고 같이 학습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1주력 과목을 6월 모의수능 전까지 완벽 정리 목표로 우선 학습하고, 나머지 한 과목을 9월 모의수능 목표로 시간 안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탐구 두 과목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난이도에 기록을 타고 안정화되지 않았다면 탐구 두 과목을 한꺼번에 학습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탐구 두 과목 중 자신 있는 과목을 1주력 과목으로 선택하여 6월 모의수능 전까지 집중학습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9월 모의수능 득점 목표로 롱텀 계획을 세운다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탐구영역 지정 주요대학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
과학탐구영역 지정 주요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홍익대 등 ※ 서로 다른 2과목 응시 필수 : 연세대(I, II 과목 구분 없음), 서울대(I + II, II + II 조합 중 택1)



탐구영역 반영 방식

탐구 반영방식	유 · 불리 비교	적용대학
표준점수 반영대학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어려운 과목 선택한 수험생 유리)	가톨릭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백분위 반영대학	1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2개 과목 백분위 성적이 고르게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	국민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아주대 등
표준점수를 각 과목 최고점으로 나누어 반영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쉬운 과목에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은 학생)	경희대, 동국대 등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표준점수 반영 대학	대학 자체 환산점수 기준이 중요하다. 대학별 탐구 보정 점수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톨릭대(의예),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2015학년도 정시 연세대학교 탐구 백분위 변환표준점수

백분위	사회탐구			과학탐구		
	변환점수	차이	누적차이	변환점수	차이	누적차이
100	66.50	-	-	70.25	-	-
99	66.22	0.28	0.28	69.22	1.03	1.03
98	65.68	0.54	0.82	68.08	1.14	2.17
97	65.18	0.50	1.32	67.19	0.89	3.06
96	64.76	0.42	1.74	66.46	0.73	3.79
95	64.33	0.43	2.17	65.96	0.50	4.29
93	63.63	0.70	2.87	64.84	1.12	5.41
90	62.67	0.96	3.83	63.54	1.30	6.71
89	62.43	0.24	4.07	63.16	0.38	7.09
88	62.16	0.27	4.34	62.78	0.38	7.47
85	61.36	0.80	5.14	61.78	1.00	8.47
83	60.86	0.50	5.64	61.06	0.72	9.19
80	60.15	0.71	6.35	59.94	1.12	10.31

2015학년도 정시 중앙대학교 탐구 백분위 변환표준점수

백분위	사회탐구			과학탐구		
	변환점수	차이	누적차이	변환점수	차이	누적차이
100	67.0	-	-	70.3	-	-
99	66.7	0.3	0.3	69.5	0.8	0.8
98	66.3	0.4	0.7	68.1	1.4	2.2
97	65.9	0.4	1.1	67.1	1.0	3.2
96	65.5	0.4	1.5	66.5	0.6	3.8
95	65.1	0.4	1.9	66.0	0.5	4.3
93	64.4	0.7	2.6	65.3	0.7	5.0
90	63.4	1.0	3.6	63.5	1.8	6.8
89	63.1	0.3	3.9	63.2	0.3	7.1
88	62.8	0.3	4.2	62.8	0.4	7.5
85	61.9	0.9	5.1	61.8	1.0	8.5
83	61.3	0.6	5.7	61.1	0.7	9.2
80	60.1	1.2	6.9	59.9	1.2	10.4



2) 인문계열 탐구과목 점검사항

인문계열은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서울대 인문계열만 제2외국어를 지정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 지원을 목표하지 않는다면 제2외국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제2외국어를 제외한 탐구영역에만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제2외국어를 준비 한다면 고등학교 내에서 배웠던 과목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득점을 위해 베트남어, 아랍어 등에 부담을 안고서라도 투자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아래 도표는 2015학년도 기준으로 제2외국어 성적을 정시나 수시에서 탐구 1과목을 인정해주는 대학의 명단이다. 인문계 모든 성적대 수험생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국어, 수학, 영어 3개영역 등급 합이 6~7에 해당하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유념해야 한다.

제2외국어 반영 및 가산부여 대학

시기	구분	대 학
정시	가산부여	건국대(5%), 부산대(5%), 조선대(5%), 충남대(2%) 등
	탐구 1과목 인정	경희대(서울/국제), 고려대(서울), 국민대, 단국대(죽전), 동국대(서울),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인문과학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서울/글로벌), 한양대(서울/ERICA) 등
수시	탐구 1과목 인정	경희대(인문사회계열), 국민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사탐/과탐을 모두 인정하는 모집단위),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자연계에서 제2외국어 탐구 대체 인정하는 대학은 ONLY 성신여대

제2외국어 선택 유·불리 사례(2015학년도 정시기준)

구분	학생 A						학생 B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 및 제2외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 및 제2외		
				한국사	한문	독어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
원점수	94	100	97	44	44	48	95	92	100	48	43	-
표준점수	133	131	129	63	61	66	134	126	132	66	62	-
등급	1	1	2	2	3	1	1	2	1	1	2	-
구분	A학생						B학생					
	제2외국어 미대체			제2외국어 대체			제2외국어 미대체			제2외국어 대체		
표준점수	517			522			520			520		

구분	대학별 환산점수	
	A학생	B학생
고려대	877.39	876.25
연세대	587.64	586.51
성균관대 (가군)	655.52	654.14
서강대	522.22	520.72

2015학년도 제2외국어 과목별 응시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기초 베트남어	27,509	43.51	스페인어 I	1,710	2.70
아랍어 I	12,356	19.54	프랑스어 I	1,697	2.68
일본어 I	7,174	11.35	독일어 I	1,628	2.57
한문 I	5,221	8.26	러시아어 I	978	1.55
중국어 I	4,952	7.83	-	-	-



3) 자연계열 탐구과목 점검사항

자연계열은 이 시기에 정해야 할 것이 I, II 과목 선택이다. I + I 으로 준비할 것인지, I + II 를 선택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주요대학 중 과학탐구를 조합을 지정한 대학은 연세대(서로 다른 두 과목 필수이나 I, II 과목 구분 없음)와 서울대(서로 다른 두 과목 필수이며 I + II, II + II 조합 중 택1) 뿐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II 과목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의 과학탐구 지정 여부 및 고득점이 가능한 조합을 고민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수학B형 및 탐구영역 가산점 부여 주요대학 (2015학년도 기준)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가산점(%)		비고
			수학	과학	
가천대	가/나/다	자연계열		5	-
가톨릭대	다	자연과학부, 생명환경학부, 컴퓨터정보공학, 생활과학, 정보통신전자공학, 미디어기술	10		-
광운대	가	건축학과(5년제)	15	5	-
덕성여대	가	정보미디어대학	10		-
	나	자연대학	10		-
동덕여대	나	자연과학대학	10	6	-
	다	정보과학대학	10	6	-
서울여대	나	자연과학, 정보미디어, 자율전공	10		-
성신여대	가	간호, 글로벌의과학	7		화,생,물 II과목 중 한과목 백분위 점수 3%
		식품영양학과			화,생,물 II과목 중 한과목 백분위 점수 5%
	나	수학과, 통계학과, IT학부	7		-
		생명과학, 청정융합과학			화,생,물 II과목 중 한과목 백분위 점수 5%
숙명여대	나	나노물리학과			물리 선택 시 20%
송실대	다	건축, 글로벌미디어, 산업정보, 정보통계보험,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	7		-
한양대	가/나	자연계열		3	단, 과학 II 과목 선택 시 변환표준점수 3%

대학입시의 성공 열쇠는 성적이 아니라 관리

모든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구는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이고, 누구는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혹은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될까봐 또는 어렵게 출제될까봐 걱정이다. 이처럼 수험생이면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걱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모의고사 성적은 노력하기에 따라 올라 갈수도 떨어 질수도 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학습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성적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능 당일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이다.

대학입시 실패 10계명



구체적인 목표 없이 공부하기	무절제한 잠으로 피로회복 하기
계획 미수립, 실천하지 않기	PC(게임, 웹서핑, 웹툰) 즐기기
성적 결과에 좌절하기	TV(예능, 스포츠, 드라마) 시청하기
영원할 것 같은 친구와 놀기	스마트폰, MP3/4 손에서 놓지 않기
이성에게 눈길, 마음 주기	부모님과 소통 거부하기

위의 대학입시 실패 10계명을 잊지 말자. 위의 10계명과 정확히 반대로만 생활한다면 대학입시 성공 10계명이 되는 것이다!!

tbs 이용가이드

tbs TV 시청방법

• 케이블 TV

 t-broad				
213번	511번	527번	347번(서울) 547번(지방)	145번

• IPTV

		
214번	416번	116번

•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 tving, 다음 tv팟〉

tbs 실시간으로 보고 듣기

• 인터넷

tbs 홈페이지(www.tbs.seoul.kr)에서 『지금 방송중 ON AIR』 클릭하세요.

• tbs 앱

tbs의 매체별
실시간 방송과 뉴스,
교통 생활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글 Play Store,
애플 App Store에서
'tbs 교통정보'로
검색하세요.

교통정보 문의

지금 내가 있는 곳, 가는 곳의 교통정보가 궁금하다면 24시간 운영되는
tbs 교통정보센터 전문요원에게 물어보세요.



트위터 <https://twitter.com/tbsseoul>



무료전화 080-800-9595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송 참여



tbs 라디오와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 채널 현황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	채널번호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강서방송	213번
	강남구 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	511번
	강동구 씨앤엠강동케이블티브이	511번
	관악구 현대HCN관악방송	347번
	광진구, 성동구 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	213번
	광진구, 성동구 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	511번
	구로구, 금천구 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511번
	노원구 티브로드노원방송	213번
	노원구 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	511번
	도봉구, 강북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213번
	동대문구 CMB동서방송	145번
	동대문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213번
	동작구 현대HCN동작방송	347번
	마포구 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	511번
	서대문구 티브로드서대문방송	213번
	서대문구 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	511번
	서초구 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	511번
	서초구 현대HCN서초방송	347번
	성북구 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	511번
	송파구 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	511번
	양천구 씨제이헬로비전(양천방송)	527번
	영등포구 CMB한강케이블티브이	145번
	용산구 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	511번
	은평구 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527번
	종구, 종로구 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	213번
	종구, 종로구 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	511번
	종로구 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	511번
경기	고양시(일산), 파주시 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	511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양평, 가평, 여주 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	511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양평, 가평, 여주 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511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511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씨제이 헬로비전(나라방송)	527번
	성남/분당(판교) 아름방송	527번
	과천, 군포, 의왕, 안양 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213번
	수원, 오산, 화성 티브로드수원방송	213번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	채널번호
경기	이천, 용인, 안성, 평택 티브로드기남방송	213번
	광명, 안산, 시흥 티브로드한빛방송	213번
	부천, 김포 씨제이헬로비전(부천방송)	527번
인천	부평구, 계양구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527번
	남구, 연수구 남인천방송	527번
	서구 티브로드새롬방송	213번
	남동구 티브로드남동방송	213번
부산	중구, 동구, 용진, 강화군 티브로드서해방송	213번
	강서구, 북구, 사상구 티브로드낙동방송	213번
	남구, 수영구 티브로드동남방송	213번
	서구, 사하구 티브로드서부산방송	213번
대구	동래구, 연제구 현대HCN부산방송	547번
	중구, 남구 티브로드대구방송	213번
	서구 티브로드대경방송	213번
	북구 현대HCN금호방송	547번
광주	달서구, 달성군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527번
	남구, 서구, 광산구 CMB광주방송	145번
울산	동구, 북구 CMB광주방송동부지점	145번
	동구, 중구, 남구, 북구 JCN울산중앙방송	318번
전남	나주, 화순, 보성, 장성, 영광, 함평, 곡성, 구례, 담양 CMB광주방송전남지점	145번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 완도, 연암, 강진, 장흥 씨제이헬로비전(호남방송)	527번
전북	정읍,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527번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티브로드전주방송	213번
충남	천안, 아산, 연기 티브로드충부방송	213번
충북	청주, 청원 현대HCN충북방송	547번
경남	진주, 사천,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서경방송	315번
경북	포항, 울릉, 영덕, 울진 현대HCN경북방송	547번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현대HCN새로넷방송	547

IPTV 채널 현황

지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채널번호
전국	KT OllehTV(올레TV)	214번
	SK BTV(비TV)	416번
	LG U+TV(유플러스TV)	116번

주요MSO 채널 현황

지역	종합유선방송국(MSO)	채널번호
MSO	현대HCN	547번
	씨앤비	145번
	티브로드	213번
	씨제이헬로비전	527번
	씨앤엠	511번

Maeil

2세부터 시작하는 온 가족 저지방 우유
매일우유 저지방 & 고칼슘 2%

매일 마시는 그 우유를
2% 저지방 우유로 바꾸면
아이의 성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매일, 우유의 힘
매일 저지방우유 2.1.0



2세부터 시작하는 온 가족 저지방 우유,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 2%

NEW



맛있는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는 밍밍하고 맛이 없다구요?
최적의 지방함량 2%로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지방 우유도
맛있게 즐기세요.



2세부터 건강한 습관, 영양 밸런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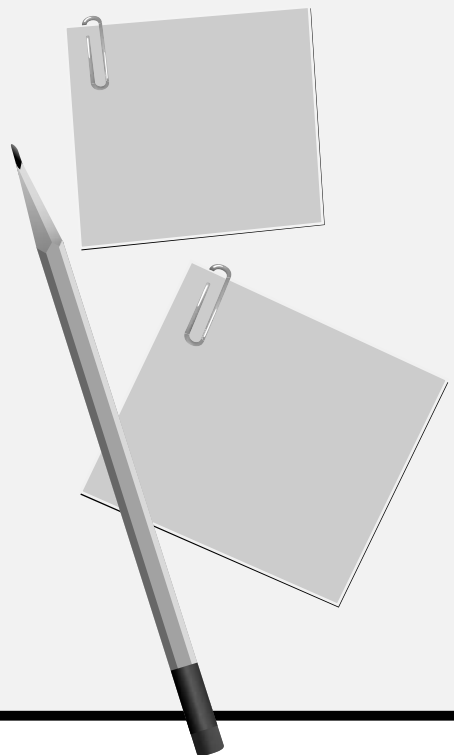
소아과 전문의들은 2세부터는 저지방 우유를
먹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을
통해서도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이죠.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영양밸런스 2%,
저지방 우유를 시작하세요.



일반우유 대비 지방은 1/2, 칼슘은 2배

성장하는 아이들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른들을
위해 지방은 반으로 낮추고, 꼭 필요한 칼슘은
2배로 높여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memo



memo

